

제4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자 7명 발표

남흥우변호사 김수한의원장 박상천의원원 이시윤변호사 안경환교수 유니스김교수 조현오청장 등

◆ 시상식 일시 : 2012. 2. 27(월) 17:00 ◆ 장소 : 서울 팔래스 호텔 로얄볼룸



(— 좌상부터 남흥우 변호사(학술원 회원, 형법학), 김수한 제15대 국회의장, 박상천 국회의원 (전 법무부장관), 이시윤 변호사(전 감사원장·헌법재판소 재판관) — 좌하부터 안경환 서울대 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유니스 김 이대 로스쿨 교수(뉴욕주 변호사), 조현오 제16대 경찰청장)

1)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수 학술원 회원(헌법), 이훈규 변호사 (전 인천지검 검사장), 조규광 변호사(초대 헌법재판소장), 황적인 학술원 회원(민법), 이만섭 전 국회의장(14·16대),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외> 는 2월 24일(금)에,

제4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자로, 학술부문 남흥우 변호사(100세 최고령 학술원 회원, 형법학), 입법부문 김수한 제15대 국회의장, 박상천 국회의원(전 법무부장관), 사법부문 이시윤 변호사(전 감사원장·헌법재판소 상임재판관) 인권부문 안경환 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사법개혁부문 조현오 경찰청장, 해외동포부문 유니스 김(Eunice K. Kim) 교수(뉴욕주 변호사)를 선정·발표했다.

2) 시상식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수상자들에 대한 제4회 대한민국 국법률대상 시상식을 2012년 2월 27일(월) 오후 5시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개최한다. 법률대상은 법치민주주의와 법률문화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리더들을 찾아서 전국민의 사표(師表)로 삼고자 2003년에 제정되어, 입법부문은 조순형 의원(새천년민주당 대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이만섭 제14, 16대 국회의장이, 사법부문은 김연태 사법연수원장, 조규광 초대·김용준 2대 헌재소장이 수상한 바 있다.

— 이날 법률연맹 20주년 기념특강·새해출범식과 공약이행 우수국회의원 시상식도 있음 —

주관단체 법률(소비자)연맹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담당 : 홍 금 애 총괄기획실장 / 윤 소 라 부장>

제4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자의 공적 편린

부문	수상자 및 프로필	공적 및 선정사유 편린
학술	남 흥 우 (南興祐) 학술원 회원 · 변호사 금년 100세, 최고령 고려대 명예교수(형법)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 형사법학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 △ 고려대 법대학장을 역임하는 등 전형적인 학자로, 한국 법조계의 큰 스승이요 교육자 △ 1978년부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논문 등 꾸준한 집필 · 저술활동 △ 법무부정책자문위원으로 형사법 발전에 크게 기여
입법	김 수 한 (金守漢) 제15대 국회의장 (6선) 전 신민당 부총재 새누리당 상임고문	△ 평생을 대한민국 민주화와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국회의장 재직시 입법활동 강화, 의원단체 지원 확대 등 정책입안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 △ 품격있는 국회운영과 국회 권위회복을 위해 노력 △ 의원시절 국회 최다발언횟수 기록 등 왕성한 의정활동
	박 상 천 (朴相千) 국회의원 (5선) 제47대 법무부장관 전 민주당 대표	△ 입법, 준사법, 정부의 요직을 두루 섭렵한 정치인 △ 대변인, 여야협상의 사령탑인 원내총무, 여당 최고의원, 야당 대표 등으로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 △ 탁월한 논리력과 돌파력, 해박한 법지식 및 합리적 균형 감각 등으로 20여년간 개혁입법과 의정활동 수행 △ 초선보다 더 모범적인 국감수행으로 3년 연속 국정감사 모범의원상(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을 수상
사법	이 시 윤 (李時潤)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제16대 감사원장 초대 헌재 상임재판관	△ ‘민사소송의 대가’ 로 인정받는 전형적인 학자풍의 법관으로 연구하는 법관상 정립 △ 민사조정제도를 크게 활성화시켜 법보다 조리에 의한 해결의 새장을 개척 △ 헌법재판소 개설시 초대 상임재판관으로 어학력과 투철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의 황무지를 개척하는 큰 활약 △ 감사원장으로서 부패와 비리척결 등 투명감사행정 전개
인권	안 경 환 (安京煥) 교수 (헌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	△ 저술활동과 시민운동을 통해 ‘법의 대중화’ 에 기여 △ 법과 문학사이, 법과 영화사이 등 문화 에세이를 통해 형사법과 인권문제 조명 △ 국민참여 배심제와 공판중심주의 도입 주장 등 사법민주화를 위해 노력 △ 국가인권위 위원장으로서 체계적인 인권옹호의 틀 마련
사법 개혁	조 현 오 (趙顯五) 제16대 경찰청장 전 서울시경찰청 청장	△ 2012. 2. 1. 법률연맹 여론조사: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한다’ 73.42%, ‘검사비리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라.’ 80.2%는 여론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196조②)와 검찰청법(53조)의 개정으로 수사권 조정에 진력, 일부성과 △ 청탁신문고제도, 수사관교체요청제도, 고소요지 사전통지제도, 국민참여형 수사이의제도 도입 등 국민의 인권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수사시스템 구축 △ 권력집중으로 인한 독단 · 부패예방을 위한 권력분립원칙(특히 국가형벌권)에 입각한 소신있는 형사사법개혁의 정책제안과 추진 노력
해외 동포	유니스 김(金庚希) 교수 (영미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미국 뉴욕주 변호사	△ 영미법, 금융법의 전문가로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진양성에 기여 (이화여대 로스쿨) △ 한국시티은행 법무본부장 및 부행장과 하나금융지주회사에서 준법감시인 및 법무담당 부사장을 역임 △ 사내 변호사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 △ 세계한인변호사협회 부회장, 해외입양인연대 자문위원 등으로 해외동포의 권익을 위해 노력